

# ‘괴물본색’



■ 투구내용 (24번째 등판-샌디에이고 팻코파크)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득점 | 안타 | 실책 |
|--------|----|----|----|----|----|----|----|----|----|----|----|----|
| LA 다저스 | 1  | 0  | 0  | 0  | 1  | 0  | 0  | 4  | 1  | 7  | 12 | 0  |
| 샌디에이고  | 1  | 0  | 0  | 0  | 0  | 0  | 0  | 0  | 0  | 1  | 4  | 0  |

| 1회 | 안타→범타→삼진→안타→범타 | 2회 | 범타→삼진→범타 | 3회 | 삼진→범타→범타 | 4회 | 범타→삼진→범타 | 5회 | 범타→삼진→범타 | 6회 | 삼진→안타→삼진→범타 | 7회 | 범타→안타→병살타 |
|----|----------------|----|----------|----|----------|----|----------|----|----------|----|-------------|----|-----------|
|----|----------------|----|----------|----|----------|----|----------|----|----------|----|-------------|----|-----------|

| 이닝 | 피안타 | 피홈런 | 실점 | 볼넷 | 탈삼진 | 투구수 | 스트라이크 | 경기 | 승  | 패 | 평균자책점 | 이닝   | 탈삼진 |
|----|-----|-----|----|----|-----|-----|-------|----|----|---|-------|------|-----|
| 7  | 4   | 0   | 1  | 0  | 7   | 84  | 57    | 24 | 14 | 6 | 3.18  | 144⅓ | 129 |

류현진, 18일만의 복귀전 7이닝 1실점 ‘시즌 14승’

114km 커브·153km 속구로 SD 봉쇄…팀 연패 끊어



‘괴물 좌완’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부상을 털어내고 완벽한 복귀전을 치르면서 메이저 리그에서도 ‘정상급 투수’로 인정받는 ‘15승·2점대 평균자책점’ 달성까지 가시권에 뒀다.

류현진은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1실점의 쾌투를 펼쳐 18일 만의 부상 복귀전에서 14승(6패)째를 거뒀

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주춤하는 듯 하던 흐름을 복귀전에서 다시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롭게 구사한 고속 슬라이더를 앞세워 후반기 상승장구하던 류현진은 지난달 초순까지 4연승을 달리며 시즌 13승을 쌓는 고공 행진을 벌였다.

다승왕 경쟁 구도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이고, 박찬호가 보유한 한국인 메이저리거 한 시즌 최다승 기록(18승)과 왕젠민의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19승)에도 도전해볼 만하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하늘을 찌를 듯하던 기세는 8월14일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엉덩이 근육을 다치면서 꺾이고 말았다. 18일이라는 시간을 재화로 흘려보내면서 다승왕 경쟁에서는 한 발 멀어졌다. 아쉬움이 남지만,

류현진에게 아직도 도전해볼 기록은 남아 있다.

‘에이스급 투수’의 기준으로 꼽히는 15승과 2점대 평균자책점이다. 이날 승리로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이던 지난해 자신이 올린 14승과 동률을 이뤘다.

1승만 더 추가해 15승을 달성한다면, 자신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성장해 다저스 마운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평균자책점을 더 끌어내려 지난해 자신이 기록한 3.00보다 좋은 2점대로 시즌을 마친다면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2점대 평균자책점은 류현진도 시즌을 앞두고 목표 로 공언할 만큼 욕심 나는 기록이다.

물론 2점대 평균자책점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기

록이다. 다저스의 잔여 경기(25경기)를 고려한다면 류현진은 앞으로 4경기 내외의 등판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경기에서 꾸준히 6~7이닝을 1~2실점 정도로 막아내야 2점대 평균자책점에 도전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지만, 류현진이 복귀전에서 보여준 호투를 떠올린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이날 류현진은 최고시속 153km(95마일)의 직구와 예리한 커브·슬라이더를 앞세워 샌디에이고 타선을 철저히 봉쇄했다. 2~5회를 연달아 삼자범퇴로 처리하고 14명의 타자에게 연달아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다.

이날의 호투로 류현진은 3.28이던 평균자책점을 3.18까지 끌어내렸다. /연합뉴스

## ‘꿀찌 경보’ KIA, 묘수를 찾아라

8월, 6승 11패~8위로 추락

오늘부터 엔트리 5명 확대

새 얼굴 발탁해 분위기 반전을



절망의 8월을 보낸 KIA 타 이거즈가 희망 찾기에 나선다. 비에 젖고 패배에 젖은 8월이었다. KIA는 지난 주말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와의 맞대결에서 2패를 기록하며 8위로 다시 내려앉았다.

4위 LG와는 5경기차로 벌어졌다. 이제는 최하위 한화가 가장 가까이에 있다. 한화가 8월 매서운 야구로 고춧가루 부대로 맹활약하는 동안 KIA는 6승11패를 거두는데 그쳤다. 비가 쏟아지니 8월 11경기가 우천취소되기도 했다.

4강은 남의 싸움이 됐지만 이대로 무기력하게 물러설 수는 없다. KIA는 지난 시즌에도 신생팀 NC에도 밀리며 8위로 마감했다. 9월 시작도 8위다.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 V10에 빛나는 타이거즈의 자존심을 위해 마지막까지 승률을 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 내년 시즌의 밑그림을 그어야 한다. 희망을 찾는 게 이번 주 숙제다.

2014 프로야구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된 뒤 아시안



게임 휴식기에 들어간다. KIA에게는 휴식기까지 10경기가 남았다. KIA는 2·3일 두산과 홈경기를 치른 뒤 4·5일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6·7일 마산으로 건너가 NC를 상대한다.

중간에 휴식기가 끼여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KIA는 휴식기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선수들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서 휴식기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냈고, 벤치는 휴식기를 전후로 사용

할 수 있는 전력을 100%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위기 탈출에 실패했다.

‘완공탈태’의 9월이 되어야 한다. 9월1일로 엔트리가 확장되면서 5명의 선수가 추가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KIA는 엔트리 확장과 함께 투수 임준혁과 외야수 박준태, 포수 백용환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여기에 신인 내야수 박찬호와 예비역 외야수 류은재도 올 시즌 처음 1군에 합류하게 됐다.

답답한 경기력으로 가라앉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기존 선수 대신 새 얼굴의 기용과 발탁을 할 필요가 있다. 내년 시즌을 끌어갈 열쇠를 찾기 위한 냉정한 경쟁체제 구축과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간절하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들이 ‘이름값’이 아닌 ‘근성의 야구’로 잠들어 있는 KIA를 깨울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대학야구 4강 확정

동의·경남·한양·중앙대, 오늘 준결승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결승행을 다들 4강 팀이 확정됐다.

중앙대가 1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제4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8강전에서 단국대를 4-1로 꺾고 4강 마지막 티켓을 획득했다.

앞선 결과에 따라 부산 동의대, 경남대, 한양대, 중앙대가 광주에서 처음 열린 대통령기 결승 진출을 놓고 준결승에서 승부를 벌이게 됐다.

동의대는 지난 31일 진행된 인하대와의 8강 경기에서 7회 8-0 콜드게임승을 거뒀고, 경남대는 고려대와의 승부에서 9-6 승리를 거뒀다. 한양대는 세한대를 4-1로 제압하며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동의대와 경남대의 준결승 첫 경기는 2일 오전 11시에 시작된다. 오후 2시에는 한양대와 중앙대가 결승행 티켓을 놓고 힘겨루기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